

연구논문

‘한국인’ 정체성, 사회적 소속감: 이주여성과 자녀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김순남**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주여성과 자녀의 관계성이 동화적인 ‘한국인’ 되기의 압박, 자녀의 성장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복지혜택의 수혜자로서의 낙인 등 다양한 사회적인 규범과 교차되는 맥락에 주목하였다. 이주여성들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실천들을 통해서 사회적 차별이나, 배제적인 삶의 방식에 개입하면서 생활세계를 확장하는 행위성을 발휘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으로 동화되어야 하는 ‘동원’되는 삶의 객체가 아니라 삶의 감각을 가진 존재로서 이곳에 살며, 이곳에서 삶의 뿌리를 만들어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이라는 의미는 동화되어야 하는 억압적인 정체성 범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권, 평등권, 인권이 더 나은 한국에서의 삶을 자녀에게 살게 하고자 하는 이주자인 어머니의 선택적인 의미와도 만난다. 무엇보다, 낯선 환경에서도 삶을 살아낸 이주여성들의 삶의 감각이 자녀들에게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삶의 자원으로 전수되며, 삶의 유연성에 기반을 둔 생애모텔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됨을 보여준다.

주제어: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인 되기, 이주자로서의 삶의 자원, 정체성

* 본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041855). 본 논문을 읽고 세밀한 심사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과 논문 과정에 도움을 준 영란과 화정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젠더연구센터 연구교수(soonnam@gmail.com)

© 2017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들어가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문화란 이름아래 헌법에서조차 민족이란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하고, 초등학교에서조차 한민족이 단일민족인데 다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이룬 다문화, 우리 자녀들이 피눈물 흘리며 고통당한다”, “대한민국의 다문화는 국가분열의 지름길”, “우리는 더 이상 다문화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망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분연히 일어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지금까지 간직해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임실사랑, 2011).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망치는” “다문화”는 대한민국의 “우리 자녀”들과 분리되어서 의미화 되며, “국가분열의 지름길”로서 명명된다. “단일민족”에 근거한 대한민국이라는 의미 속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뿌리가 없는 외부자들로 구성된다.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국가정체성은 누가 이 사회에서 ‘온전한’ 시민이며, 누구의 가족관계, 사랑의 방식, 삶의 모델이 사회적으로 존중되고, 가치 있는지를 판단한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존재들은 ‘근본이 없는 자’, ‘뿌리가 없는 자’로 명명되었고, 그들은 기지촌의 흑인 혼혈인의 자녀뿐만 아니라(국가인권위원회, 2003), 현재 다문화 가정으로 이어지며, 각각의 삶의 경험은 다르지만 국가계보, 가족계보에 낯선 타자로 구성되는 점은 유사하다.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과 타자화는 동시에 그들과 연결된 존재인 자녀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자녀에 대한 불안감의 요인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와도 맞물린다. 2015년도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정책대상으로 규정된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배우자에 대한 전국다문화 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구 278,036 가구 중에서 자녀가 없는 가구는 33.2%이며, 평균 자녀수는 1.01명이고, 2012년의 0.9명 평균수보다 늘어났다(여성가족부, 2016).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들은 한편으로 제2의 “오바마”(『국민일보』, 2009.7.21)가 될 ‘글로벌’한 차세대 주체이거나, “인종갈등과 같은 사회 혼란”을 잠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주체로 재현된다(『한국국정일보』, 2014.5.25). 이러한 이중적 시선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가 ‘글로벌’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계급적, 문화적 자원이 부재하다면 언제나 사회적 공포, 불안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은 이주여성이 한국이라는 삶의 장소에서 삶의 감각을 가진 주체로서 어떻게 생활세계를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이주여성들이 본인과 자녀의 삶을 낙인화하는 사회적인 규범에 협상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떻게 관계적 삶의 모델들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 비가시화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열 명의 이주여성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천착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여성과 자녀의 관계성이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 속에서 어떻게 순응적인 주체가 아니라 규범에 거리두기 하는 방식과 실천들을 수행하는지, 그러한 실천들이 본인과 자녀가 이곳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는 사잇지대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주여성과 자녀의 관계성이 ‘한국인’ 되기의 과정과 교차되는 맥락에 천착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한국인’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닐 때, 어떠한 맥락에서 한국인다움을 위한 실천을 요구받는지, 그리고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단순히 동화주의적인 압박의 결과인지,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적인 의미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셋째, 이주여성이자 어머니인 소수자의 삶의 위치성이 어떠한 맥락에서 자녀와 관계결속을 만들어내는 삶의 자원으로 등장하는지, 그리고 획일적이지 않은 가족실천, 삶의 모델과 만나는지를 가시화 하고자 한다.

2. 이론적인 경향

1) 국가계보와 관계성

한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은 그 나라에서 태어났거나 살아간다고 해서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는 아니다(백영경, 2016).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법적인 시민권과 동시에 일상적으로 사회 속에서 동등한 대우, 위치를 경험하는가에 대한 실제적 시민권(substantive citizenship)과 연결된다(Kim, 2013). 시민으로서의 실제적인 삶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인가에 따라서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시민으로서의 삶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국가정체성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족규범, 가족에 대한 이상성, 정상성이 개입하는 사회에서 누구의 몸을 경유한 출산인지, 양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너의 뿌리가 어디이며, 너의 부모가 어디 출신인가의 문제는 한 개인의 시민권의 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립적 개인에 기초한 시민권 개념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장미경, 2001: 66) 관계적 시민권은 이주여성 어머니의 사회적인 위치성이 자녀의 성장과 삶에 어떠한 영향을 상호적으로 만드는지, 그러한 상호적인 관계에 개입하는 사회적인 규범, 권력관계를 가시화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관계적 존재성에 기반한” 관계적 시민권은(Voet, 1998: 15, 장미경, 2001: 66에서 재인용) 사회적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규범이 어떻게 자녀와의 관계성을 규정하는 토대가 되며, 동시에 이주여성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 편견, 낙인을 재정의하면서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관계적 주체로 등장하는지에 주목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이주여성과 자녀의 관계성에 개입하는 사회적인 규범은 다문화가족이 국가계보에 이질적인 존재로 배치되는 것과 연결된다. 님은

신체, 님은 꼴에 대한 신체의 정치학은 국가계보를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원되며, 이주여성과 자녀를 사회적으로 불화적인 주체로 구성하며, 이질적인 낯선 타자로 배치한다. 무엇보다, 민족적, 인종적 규범은 생명의 질에 대한 근대의 욕망, 출생의 기원에 대한 위계, 출생 이후의 인구의 질을 상상하는 위계 속에서 작동한다(염운옥, 2009; 백영경, 2015). 이러한 속성화된, 구분된 인구모델은 법적인 권리와 다르게 일상적으로 이상적인 시민/비시민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관계 사이로, 사회문화로 흘러넘치고, 타자들을 시민모델을 구성하는데 배제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자원을 배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나영정, 2017: 129). 이상적인 시민/비시민의 구분은 이주여성들과 자녀를 인구정책이나 가족유지를 위한 대상으로 법적으로 포섭하지만, 2등 시민으로 배치하는 배제적 포섭(exclusive inclusion)과 연결되며, 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가 동등한 성원권을 갖지 못하는 사회적인 위치성을 공고히 한다(김청강, 2017: 122). 무엇보다, 인종적, 우생학적인 구도에 기반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흑인혼혈인은 ‘순수’한 민족의 혈통을 교란하는 “보이지 않은 한국인”(김청강, 2014)으로 배제되었고, 부계가족제도에 기반한 결혼중심의 다문화가족은 이주여성과 자녀를 법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호명하고 ‘보이는’ 주체로 재현하지만, 다문화가족의 역할은 사회의 동등한 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인구정책의 대상으로 분리하는 동화주의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또한, 부계가족제도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부에서 결혼이주민 가족과 이주노동자나 그들의 가족은 차별화된 정책적인 대상이 되며, 부모 중에 한국인이 있을 경우에 이주자와 그들의 자녀는 ‘한국인’으로 동화되어야 하는 압박을 경험하지만 동등한 시민권으로서의 공동체적 다문화성격은 취약함을 보여준다(김영란, 2012).

2) ‘한국인’ 되기의 수행성과 자녀의 성장과 관계성

이렇듯, 획일적인 ‘한국인’으로의 동화적인 압박은 한국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미 혼종적이며, 비균질적인 모호한 속성을 가지는 것을 배제하며,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한국인’다움을 위한 어떠한 수행적인 압박을 경험하는지를 주변화한다(김현미, 2013).

일차적으로 많은 연구들은 한국인 정체성의 억압, 배제의 정치가 단일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가족이데올로기와 연결되는 맥락(김영옥, 2012)과, 획일적인 국가정체성의 유지와 동화적인 다문화주의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사회적 배제, 불완전한 시민권, 가부장적 가족제도, 국가 간의 위계를 정당화하는 토대가 되는 점을 지적한다(김민정, 2007; 김정선, 2011; 김현미, 2006). 그러나 동화적 다문화주의가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을 순응적으로만 규정짓는 방식에 문제제기하면서, 일군의 여성학자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법적, 사회적, 일상적 배제 속에서 불평등한 타자적 위치를 경험하는 한편, 동시에 새롭게 의미화되는 소속의 의미, 홈(home)의 의미, 가족적 관계를 새롭게 의미화하고 협상하는 주체로서의 행위성에 주목해왔다(김정선, 2012; 김현미, 2010; 2014).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에서의 삶의 소속은 국적취득만의 의미가 아니라, 성별화된 민족주의로 인해 타자화된 삶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이수자, 2004)과 초국적 페미니즘을 통한 단일한 민족중심의 한국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김영옥, 2010; 김현미, 2010; 이나영, 2006).

위의 연구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경험에 주목했다면, 이주여성과 자녀의 관계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낙인화된’ 사회적인 규범이 자녀와의 양육에 있어서도 출산과 아이양육의 젠더책임은 가지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모성, 시민권으로 연결되는 주요한 토대가 됨을 지적한다(이은아, 2013; 황정미, 2012).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자녀양육

의 환경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권의 확보 및 소수자로서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개선을 통한 자녀양육 환경개선이나(김영주, 2010), 학교 내의 왕따 경험을 통해 자녀들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는 상황이나(천호성·박계숙, 2012), 어머니로서의 대접에 대한 기대와 좌절, 낮은 타국에서의 임신과정의 어려움(김경원, 2010)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변화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 된다는 당위적인 접근은 ‘위험관리차원’의 해결적 과제로 자녀의 복지에 주목하거나(주정, 2011: 83), 이주여성의 삶이 양육의 역할로 제한되는 데에 대한 비판적 고찰보다는 ‘제대로 된’ 양육을 위한 도움이나 자녀 양육을 통해서 경험되는 불안정한 모성적인 위치를 강조한다(윤재희·유향선, 2011; 한경남, 2012).

이렇듯,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이주여성들이 ‘무력한’, ‘결핍된’ 사회적 타자가 아니라 사회적인 낙인이나, 편견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결속과 삶의 모델을 꾸려나가는 모습들을 가시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김(Kim, 2013: 470-475)은 결혼이주여성의 민족적/젠더적 시민권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어머니로서의 법적인, 경제적인 권리의 확장을 위해 모성적인 시민권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과 순응적인 엄마 정체성에 저항하면서 의존적인 이주여성의 이미지에 비동일시 함을 보여준다. 이은아(2013)는 계급적인 자원의 한계 속에서 ‘한국인’다운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과 결핍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초국적 문화자원, 언어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감각을 훈련시키는 이주여성들의 행위성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존적인 모성에 대한 저항이나, 자녀교육에서 보여주는 다문화전략이나 행위성뿐만 아니라, 이주자이자 어머니의 삶의 취약성이 어떻게 자녀와의 관계성을 모색하는 토대가 되는지, 동시에 빈곤이나, 낮은 지위 속에서 삶을 살아낸 이주여성들이 전수하는 삶의 자원이 순응적,

동화적 ‘한국인’ 정체성에 개입하는 맥락에 천착하고자 한다.

이주여성과 자녀가 경험하는 관계성은 동화주의 대 다문화주의라는 이원화된 구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생학, 인종적, 민족적인, 계급적인 위계와 교차되며, 자녀의 정체성과 성장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은 다문화가족 내부에서도 상이하게 작동한다. 영국 내에서 부모의 출신국이 다른 자녀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출신국에 대한 차별이 강한 경우에 자녀가 부모의 민족정체성 보다는 영국에 더 동화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연결되며, 부모가 중산층 이상이거나 다문화를 수용하는 지역이나 환경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자유롭게 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선택해가는 것으로 언급한다(Caballero et al., 2008). 또한, 미국에 이민 온 2세대의 민족적 정체성을 연구한 럼바우트(Rumbaut, 1994: 779)는 부모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부모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결여되는 조건에서 자녀들은 ‘미국인’이 되어야 하는 강한 동화적 압박을 받는 것으로 설명한다.

한국에서의 2012년 전국다문화 실태조사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인종적, 민족적 이유로 인한 차별경험에 미국, 일본이 20%대인 반면, 동남아시아 등 기타 지역은 50%대 이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여성가족부, 2013). 그러나 낮은 지위로 상징되는 다문화가족의 이주자들과 자녀들이 한국에서 동화적인 압박의 강도나 사회적인 편견에 직면할 확률이 높은 것은 사회적인 현실이지만, 동화 자체를 ‘무기력한’, ‘순응적인’ 삶으로 포섭하는 사회적인 시선에 대해 어떻게 비동일시 하는지, 그리고 선택적인 동화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행위성은 가시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주여성들은 ‘무기력한’, ‘의존적인’ 주체가 아니며,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피해나 억압이 “(이주)여성이 무기력하다는 일반론을 입증”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모한티, 2005: 44).

이주여성들은 “한국, 한국인, 한국가족” 중심의 인구정책의 대상이 되지

만, 그녀들의 삶은 인구정책을 위한 출산의 주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서 가치와 문화와 생활세계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이 사회에서 존재한다(백영경, 2015: 126).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들이 획일적인 동화적인 한국인 되기를 넘어서 어떻게 이 사회에 혼종적인 가치와 생애모델을 만들어 가는지, 그러한 생애모델이 본인과 자녀에게 부여된 배제적인 삶을 재정의 하는 관계적 존재이자, 시민으로서의 생활세계를 확대하는 행위성과 연결되는지에 천착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주여성들과 자녀의 관계성이 사회적인 규범과 연결되는 맥락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삶에 장소성을 만들고, 규범에 개입하는 행위성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주의적 질적 방법론에 근거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방법론은 미시적인 개인의 삶의 이야기가 물질적,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상황적으로 구성되는 측면과 참여자들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위치성과 교차하는지 그 맥락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한다(Jackson, 1998: 50). 본 연구의 방향은 이주여성들의 일상적인 삶이 이주, 민족, 어머니로서의 역할, 국가 간의 위계, 한국인 정체성과 교차되는 측면과, 그러한 삶의 위치성이 자녀와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맥락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면접은 비구조화된 질문지로 진행되었으며, 질문의 방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규범이나 한국인 정체성,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이주여성이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본인과 자녀와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족규범,

한국인 정체성, 자녀의 성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이주의 경로가 결혼인 경우는 여섯 명이며, 세 사람은 노동으로 이주한 이후에, 한 사람은 난민으로 이주 후에 한국 사람과 결혼하였고 현재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자녀와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모든 참여자들은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였고, 자녀가 경험하는 학교나 주변 또래 집단에서의 차별 경험에도 주목하기 위해서 최소한 자녀 중에서 초등학교 이상인 경우에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모두 10사례(필리핀 4사례, 베트남 2사례, 중국 2사례, 태국 1사례, 콩고 1사례)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지역은 안산이 네 명이며, 서울 한 명, 안양 한 명, 인천이 두 명, 그리고 이천이 두 명이다. 심층면접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는 3-4시간 정도 이루어졌고, 거주자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면접자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충분한 대상으로 제한하였지만, 연구과정에서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연구자가 정확한 한글로 표기를 변경한 부분이 있으며, 변경된 내용으로 논문에서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연구참여자와의 신뢰감 구축을 위해서 연구자에 대해 잘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일부의 면접자들을 만났고, 다른 참여자들은 이전 이주연구에서 만난 참여자들의 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아래 <표 1>에서의 참여자의 연령은 2016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소개

사례	출신국	본인/ 남편연령	학력	자녀	이주 년도	현재직업	주거 형태 ¹⁾
사례 1	필리핀	41/43	대학 중퇴	중3, 중1, 초4	2000	다문화강사, 통역알바	임대 아파트
사례 2	베트남	33/45	고졸	초1, 여섯 살	2003	다문화강사	자가 아파트
사례 3	태국	38/49	대졸	중2, 초5, 초4	2000	다문화강사/ 협동조합 함께 운영	월세 (50/300)
사례 4	필리핀	43/48	대학 중퇴	초4, 초3, 여섯 살	2003	가게에서 일함	월세 (30/500)
사례 5	베트남	44/52	중졸	중2	1998	다문화센터	전세 (3,000)
사례 6	콩고	36/이혼	고졸	초6	2000	다문화/ 영어강사	월세 (27/200)
사례 7	필리핀	42/54	대학 중퇴	중3, 초4	1999	청소노동자	임대주택
사례 8	중국	45/60	고졸	초6	1995	보험회사	전세 (7,000)
사례 9	중국	47/50	고졸	초2, 세 살	1995	다문화센터	시어머니의 자가아파트에 거주
사례 10	필리핀	47/50	대졸	고2, 중3, 초6, 5개월	1999	전업주부	월세 (40/500)

1) 주거형태 월세는 괄호 안에 월세/보증금, 전세는 전세금액, 단위: 만원.

4. 다문화에 대한 규범과 지역에 뿌리 내리기

1) 비가시성과 패싱

이주여성과 자녀가 만들어가는 관계성은 사회적으로 이주여성이 어떤 시민이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규범과 분리되지 않는다. 2010년 경기도에 거주하는 3298명의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질문 중 ‘외국인 부모’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에 대한 질문에서 ‘말이 안 통하고 공부 도움을 못 받는다(16.4%)’라는 인식이나 ‘부모가 외국인이라 불편함을 표현한(8.8%)’ 비율보다 ‘엄마나 아빠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싫어(31.8%)’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은 부모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자녀의 소속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전경숙 외, 2010: 130). 자녀들이 경험하는 소속감에 대한 불안은 이 사회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의 출발점이 되며 또한 어머니가 한국 사회에서 이질적인 존재임을 자각하는 순간과 연결된다.

마음 아픈 얘기도 있고요. 우리 아들이 피부가 약간 까매요. 한국말도 서툴고 하나까 친구들이 안 놀아요. 막 자기는 같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와서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눈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없어. 근데 엄마는 왜 외국 사람이야?” “누가 그래?”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사례 1).

“근데 엄마는 왜 외국 사람이야”라는 질문은 자녀가 친구들과 사이에서 경험하는 불화를 드러내며, 자신을 낮설고, 이질적인 존재로 마주하는 것이다. 자녀가 경험하는 불편함은 ‘외국인’인 엄마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를 감지하는 것이며, 피부색이 “까매요”라는 〈사례 1〉의 이야기는 피부색의 차이에 대한 인종적 차별을 드러낸다. 혼종적인 삶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

은 엄마의 삶의 뿌리가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을 문제화 하거나,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충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큰 애기가 눈이 커요. 한국여자들은 눈이 좀 작고 쌍꺼풀도 많이 없고, 밖에 나가면 누가 봐도 엄마 닮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신랑이 다문화 싫어하잖아요. “(남편이)아니라고 애가 나(남편) 닮았다고 엄마 안 닮았다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외국사람 같은 게 싫은 거예요. 저는 일단은 이쁘면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신랑 진짜 인정 안했어요. (...) 막내는 걱정 없어요, 한국스타일이에요, 눈도 작고(웃음)(사례 2).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외국사람 같은 게 싫은 거예요”라는 이야기는 자녀의 외모 자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인식과 연결되며, 동등한 성원이 되기 힘든 현실을 드러낸다. 피부색에 부여되는 차별로 인해서, 위의 <사례 2>는 가능하다면 ‘한국인’과 유사한 외모로 ‘폐쇄’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버틀러(2008: 54)는 “신체는 도덕성, 취약성, 행위주체성을 함축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체는 타자들의 세계와 분리되지 않으며, 신체는 타자성의 상징이 되며, 사회적으로 삶의 의미들이 각축하는 장과 신체는 연결됨을 강조한다.

피부색이나 외모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판단되는 사회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가 친구들에게 피부색이 검다고 놀림을 당할 때 “우리 엄마가 태국사람이라서 엄마 닮아서 그래. 건강한 피부라서”(〈사례 3〉) 그렇다는 발화는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동시에 엄마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에 저항하는 과정이며, 엄마의 “피부색”을 수용하는 것은 엄마의 삶의 뿌리를 인정하는 자녀의 삶의 의미와 교차된다.

이주여성이 살아온 삶의 흔적, 기억, 뿌리를 ‘한국식’으로 ‘트랜스’해야 하는 압박은 자신이 이주자인 어머니라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자녀와 자신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도 연결된다. 참여자들이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것은 비가시성을 통해서 ‘한국인’으로 패싱하기 위한 전략과 만나며, 그 이유는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이주자인 어머니로 인해서 혹여 받을 어려움이나, 은행이나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인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결혼이주로 참여한 연구자들 중에서 이름을 바꾸지 않은 두 사람은 “내 이름을 우리 아빠가 지었기 때문에” 바꾸고 싶지 않았고, “국적도 바꾸고 내게 남은 건 이름밖에 없어요”(〈사례 1〉)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름만 남아 있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나한테 준 이름. 소중한 그래서 안 바꿔”(〈사례 10〉)라고 한다. 이렇듯,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낯선 타자로 쉽게 인지되고, 차별을 예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지키는 것이 저항의 의미로도 구성됨을 보여주며, 다문화에 대한 타자화된 인식에 개입하는 과정으로 작동한다.

2) “다문화딱지”와 사잇지대 만들기

“다문화 딱지”, “다문화 굴레”라는 〈사례 1〉의 이야기는 다문화라는 호칭이 웬지 “자신의 자녀를 낮게 보는” 것이라는 현실을 보여주며, 온전한 시민으로부터 배제된 사회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2008년도에 도입된 다문화정책지원은 자녀의 출산이나 자녀교육을 위한 제도적 다문화주의와 연결되며, 결혼이민자 여성에서 2세대인 자녀로 정책적인 변화를 반영한다(김영란, 2012). 그러나 출산지원정책 중심의 제도적 다문화주의는 이주여성의 시민권의 확대가 아니라 출산을 위한 역할로 제한하고, 동시에 복지혜택에 의존하는 자들로 사회적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규범 속에서, 연구참여자 모두가 국적이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성원권을 부

여받지 못한 채 출산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항변하는 상황이 된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출산을 해주는 사람이다”(〈사례 9〉), “근데 저는 나라 도움 받으려고 (아이) 만든거 아니예요”(〈사례 10〉)라는 격한 반응은 “혜택 많이 받는 애들 때문에 나라가”(〈사례 1〉) 망한다는 주변의 인식 속에서만 이해 가능한 이야기이다.

사회적으로 동등한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 가장 쉬운, 문제적인 전략은 특정한 그룹을 사회에 ‘피해’를 주는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세금을 축내는 사람들”(〈사례 4〉)이라는 단어는 가부장제 순혈주의에 기반한 국민정체성을 넘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복지 혜택을 받는 자와 세금을 내는 자라는 구분 속에서 작동하는 국민/비국민의 위상을 반영한다. 다문화에 대한 규범이 단독자인 이주여성 개인이 아니라 이주여성과 연결된 자녀의 삶에 동시에 영향을 줄 때, 참여자들은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선과의 거리두기를 위해 지역, 학교 공간에서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등장한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불쌍한’ 사람들, 국가가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상황은 타자화된 다문화에 대한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의 계기가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이나 아이다마을에서²⁾ 활동하거나 다문화강사로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과 접촉하는 만남을 통해서 인천, 이천, 안산 등지에서 사잇공간을 만들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 활동이 지역 내에서 이주여성이 인정을 받는 과정이며, 동시에 자녀가 지역에서 인정되는 것과 상호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콩고 출신인 〈사례 6〉이 영어강사보다 돈이 적지만 다문화강사를 하는 이유는 만남을 통해서 좁혀지는

2) 아시아 이주여성 다문화 마을이라는 의미인 아이다마을은 부평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인천여성전화회 중심이 되어서 ‘아이다마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013년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었다. 아이다마을은 한국어반, 인권지원, 상담, 소모임 활동, 문화체험, 공연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씨스터푸드’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주여성들과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나 고향음식,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거리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그러한 거리감의 변화는 콩고나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연결된다.

진짜 나쁜 이미지. 그것밖에 없어요 학교도 그렇고. 내가 처음에 가면 콩고에 뭐가 있다고 내가 계속 설명하면, 학생이 그럼 티비에 있는게 다 거짓말이에요?라고 물어요. 아프리카가 대륙이 55개 나라인데 다 힘든 나라 말도 안 되죠. 집에서 인터넷 있으니까 집에 가서 다 확인하면 된다고. 학생들이 종종 아무래도 선생님 말이 맞는것 같다고 그러면 진짜 행복해요. 영어수업보다 돈이 작아도 이게 내 일 됐어. 아무리 피곤하고 아파도 항상 교실에 들어가면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사례 6).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타자화된 대상에 대한 감각은 변화되고, 그러한 감각의 변화는 이주여성과 자녀가 이곳에서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생활세계를 확장한다. 사회적 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이나, 삶의 어려움은 일상을 마주하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 느끼는 간격이나 거리감인 한편, 사람들 사이에서 마주하는 환대를 통해서 사잇지대가 구성되기도 한다. 김현경(2015: 26)은 “우리를 사람으로서 만들어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대접이다”라고 한다.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여성과 자녀가 사람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주어진 국적이나, 정책적인 지원만이 아닌, 삶을 장소성을 만들어 가는 주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 “동네 사람들도 누구 집 자녀”라고 하면 알 정도로 지역 내의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 애들이 잘 될 수 있게 노력하는”(〈사례 3〉) 과정이며, 그러한 실천은 본질적인 뿌리로, 뿌리의 시원으로 삶의 의미를 제한하는 규범에 개입하고 균열을 내는 과정이다.

5. ‘한국인’ 되기의 수행성과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한국인’

“진짜 뭐 그 뿌리가 중요하겠지. 그렇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라는 <사례 8>의 이야기는 뿌리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삶의 의미들이 탈각되는 한국에서의 현실을 드러낸다.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한가지의 뿌리로 혹은 한가지의 정체성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글로리아 안잘두이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파편화하거나,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의 범주일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운가, 모호하다고?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붙이는 표식들만이 나를 분할한다”(Anzaldúa, 1981: 228, 박미선, 2014: 100에서 재인용)라고 이야기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으로 동화되어야 하는 ‘동원’되는 삶의 객체가 아니라 삶의 감각을 가진 존재로서 이곳에 살며, 이곳을 선택하며, 이곳에서 삶의 뿌리를 만들어 간다. 동등한 시민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사회에서 이주자와 자녀는 ‘온전한’ 한국인으로 동화적 정체성의 압박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생존, 보호망, 더 나은 삶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한국인’이라는 의미를 구성한다.

1) 년 이질적인 존재야: 한국인으로 수행하기

사회적으로 소수자들은 모욕이나 차별을 예감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모욕이나 차별을 예감한다는 것은 실제로 차별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별의 가능성을 인지하는 주체가 되는 걸 의미이며, 그러한 차별의 가능성을 통해서 현재, 미래의 자신의 삶의 취약성을 인지하는 감각이다. 태어난 출산지역이나, 부모의 출신국으로 삶의 소속감이나,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예요?’라는 자녀들의 질문은 차별적인 환경을 인지하는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한국에서 태어났어? 아니면 필리핀에서 태어났어?” 내가 대답했어 니들은 셋이 한국에서 태어났어. “그럼 엄마 우리 필리핀 사람 아니지?” 그래 필리핀사람 아니지 왜냐면 너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필리핀에서 태어나면 여기 왔을 때 니들 필리핀 애들이야. 근데 니들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니들 한국 사람이야. 근데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기 때문에. 아빠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니들 다문화 아이들. “아, 그렇구나 엄마.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랑 다른 아이들. 같은 반 이랑 나 필리핀 사람 그랬어”(사례 4).

“엄마 우리 필리핀 사람 아니지”라는 자녀의 물음은 친구들과 유사한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넌 누구냐’라는 다가올 차별적인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는 위치를 보여준다. 주체의 정체성은 주어진,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황적으로 구성된다(유발-데이비스, 2012: 30-31). 한국인이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실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국인으로 “효용가치가 있는 몸(useful body)”, 한국인으로 “효용가치가 있기 위해 체화된 실천(useful embodied practices)”을 요구하며, 그러한 실천은 도달할 수 없는 미완성의, 지속적인 실천에 대한 압박을 강제한다(Gedalof, 2003: 101).

“자기엄마 문화”를 보여주면 “큰일”이 나는 한국인다움의 수행은 어머니의 문화를 이질적이고, 낮은 삶의 방식으로 배치하는 과정 속에서 구성된다. 그러한 압박은 “딸이 결혼해서 요리를 못하면”(사례 8) 시댁에서 자신 탓을 할 것 같은 걱정이나 “엄마 갑자기 이런 (한국)음식 먹고 싶다” 그랬을 때 “내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울음)”(사례 4)라는 이야기들과 연결되며, 지속적으로 한국인 되기의 노동을 요구받는 동시에 ‘실패’하는 수행의 가능성을 예감하는 취약성을 보여준다. 문화적으로 동질성(sameness)과 안정성(stability)(Gedalof, 2003: 101)에 대한 사회적인 압박은 일상적으로 ‘한국인’으로 키워야 하는 압박이나 일상적인 노동이나 정

서적인 노동을 비가시화 한다.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여섯 명이 자녀가 한국인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자녀가 ‘한국인’이라는 의미는 동일하게 ‘쉽게’ 해답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 사회관계 속에서 의미가 구성됨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니까 꼭 한국 사람으로 키워야겠다’(〈사례 1〉)거나,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사례 4〉, 〈사례 5〉), “아이가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으니까”(〈사례 2〉), “피부색은 다르지만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니까”(〈사례 7〉)라고 언급한다. 위의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한국인의 의미가 단일하게 대답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호한 것임을 보여준다. 결국, ‘한국인’이라는 의미는 모호함, 대답 불가능성을 삭제하는 조건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이질적인 삶의 요소들을 통합하는 억압 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억압적인 상황은 왜 〈사례 2〉가 집에서도 베트남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베트남 출신임을 자녀에게 7년 동안 숨겨 왔는지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사례 2〉가 자녀에게 자신이 베트남 출신임을 이야기한 계기는 자녀가 유치원에서 피부가 검은 친구에게 “아프리카가 난하고 더럽”다고 놀린 이야기를 들은 후에 나중에 커서 “자기 엄마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무시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었다고 한다. 이렇듯,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불안감은 사회적으로 동등한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과 “혈연, 영토, 언어라는 삼중의 동질성”에 기반한 ‘한국인’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김현미, 2014: 196). 특히, 다민종, 다민족에 기반하지 않는 ‘한국인’에 대한 획일화된 정체성은 이주여성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조건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 또한 이주여성의 몫으로 부과된다.

(차별에 대해) 다 말할 수가 없죠. 애기니까. 그럼 엄마도 미안하고 마음도 안 되죠. 제가 힘들면 애기도 힘들어요. 다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아직 아프리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애기가 조금만 알아야돼요.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몰라서 조금 힘들다는 것을 미리 조금만 알려줘요. 너무 많이 알면 아이가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아이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콩고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미리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되죠 조금만 알아야돼요. 다음에 경험하면 아 엄마가 미리 말한 거구나 느낄 수 있죠(사례 6).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되죠”라는 것은 구체적인 개인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장소성에 대한 갈구, 동등한 사람으로서 연결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한다.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차별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사회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며, 현재의 삶의 어려움을 유예시키는 전략이다. 자녀에게 사회적인 차별에 대해 “조금만” 알게 한다는 것은 이주자의 위치 속에서 감각적으로 경험해온 누적된 차별의 시간을 의미하며, 그러한 차별 속에서 삶을 살아온 자신에게 말을 거는 방법이다. 이러한 생존에 대한 감각, 이주자로서의 감각은 한국에서의 삶이 획일화된 정체성으로 포섭될 수 없는 삶의 지형을 드러낸다.

2) 선택적인 ‘한국인’ 되기

“생존하기 위해서 여기를 택한”(〈사례 8〉) 사람들을 국가, 사회, 공동체의 규범에 단순히 순응하는 주체로 구성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한국 사람이라는 의미는 한국인이냐 아니냐 라는 위계적인 민족정체성의 의미를 넘어서 시민으로서의 삶의 안정성(security), 지속성과 연결되며, 더 나은 주체되기로서의 선택적인 의미로서 작동한다. 한국인이라는 의미는 한국으로 이주한 목적과 연결되며, 자신과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이주자의 삶의 감각 속에서 구성된다.

저는 얘기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베트남 사람이라고 한 부분도 없어요. 저도 지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적도 한국국적이어서 베트남 국적을 포기했어. 지금 대한민국인데 지금 저도 베트남사람. 베트남 국적을 포기했는데(사례 5).

면접자: 국적을 포기해도 베트남 사람일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 고국에 돌아갈 생각 있어요. 저는 절대 그런 생각 없어요 전 죽어도 한국에서 죽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 때문예요. 우리나라 지금은 공산당이잖아요 여기는 국민이 인권 있어. 우리나라는 인권 없어요. 지금 베트남이지만 한국국적이잖아요. 제가 만약 베트남 가면 만약 법적으로 걸리면 한국대사관에서 도와줘요(사례 5).

나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는 이주의 목적이나 한국으로의 결혼의 동기, 그리고 여기에서 가족을 만들고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주의 계기는 이곳에서의 삶을 추동하며, 삶에서 당면하는 어려움을 본국과의 상호비교를 통해서 현재 이곳에서의 의미를 구성하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의미는 민족 정체성의 의미가 아니라 한 사회의 사회권, 평등권, 인권에 대한 이주자의 감각을 통해서 맥락화된다. “좀 더 나은 나라에서 살아서 다행이다”(〈사례 9〉), 혹은 “필리핀 가면 (자녀가)나처럼 있을 것 같아”(〈사례 4〉)라는 이야기들은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자신이 이곳에서 삶을 살아내는 동력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국에서의 삶은 이주 이후에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의 가치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상호 비교되며, 이곳에서의 삶에 애착을 부여하는 근거로서 공식적으로 작용한다(Ralph and Staeheli, 2011: 520-522). “한국 사람으로 완벽하게”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사례 2〉의 이야기 또한 구체적으로 베트남

여성과 한국여성과의 비교 속에서 구성됨을 보여준다. “내가 알고 있는 베트남 여성들은 좋은 직장에 돈 많이 주는 좋은 직장 있어도 결혼하면 부업에 가는 거 밖에 없어요. 한국 여성 아니잖아요”라는 <사례 2>의 이야기는 남편에게 종속되지 않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즉, 한국 사람이라는 의미는 자신의 뿌리를 단순히 부정하는 의미로 환언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비동일시이다. 한국인이 되는 과정은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종속된 존재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에 종속된 존재로 간주되는 국가정체성의 의미가 아니라 젠더규범의 변화에 대한 욕망이며,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삶의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한국인이라는 의미가 자녀의 미래를 위한 관계적이며, 선택적인 의미로 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성원권에 대한 욕망 또한 자녀와 삶과 교차되며, 그것이 투표에 참여하는 이유가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투표 권한을 줘줬죠. 그럴 때 그런 생각을. 아 그래 맞아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고 우리나라니까. 우리 아들이 여기서 이제는 진짜 가정을 이뤄야 되고 하니까 제대로 해야지 투표는.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사례 8).

“앞으로 살아갈 나라”, “대한민국 국민”, “여기서 이제는”이라는 단어들은 삶의 소속감이나 흠이 되어가는 과정과 연결된다. 이렇듯, 장소성은 사회적인 관계와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며(맥도웰, 2010), 한국 사람이라는 의미 또한 획일적이지 않다. 한 인간의 생애에서 정체성은 하나의 뿌리도 아니며, 다중적인 삶의 빛깔과 존재의 흔적들이 몸에 각인되고 변화되는 과정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여기서 사니까 여기 젖어가는 거죠. 생활에 무의식적으로 이제 아 나도 한국 사람이구나”(〈사례 8〉), 생각하고, “한국사람 성격도 배우면서 한국사람 성격으로 변해”(〈사례 3〉), 가

고,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이제 한국사람 됐구나 이런 생각”(〈사례 10〉)이 드는 순간을 접하게 되고, 다시 “유럽에 가면 내가 힘들어 같아요. 저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아마 이제 할 수가 없어. 큰일 났네. 대한민국 아줌마 됐어요”(〈사례 6〉)라고 이야기한다.

이주여성들은 행동패턴, 습관, 시간주기, 자녀출산 등 다양한 순간, 삶의 시간을 경유해서 혼종적인 아비투스들 체화하면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시민이 되는 것은 이주여성과 자녀의 몫만이 아니라 살고 있는 안산, 인천, 이천 등에서 그들이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차별에 대응해주는 이웃들과의 연결망 속에서 온전하게 구축된다. “학교 나가서 우리 친구들 괴롭히면 학교친구들이 막아주고. 콩고 분들도 많이 있어요”(〈사례 6〉)라는 이야기는 이주민센터의 도움, 지역네트워크, 아이다 마을 등 사회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곳 한국에서 사람의 얼굴을 가진 성원으로 삶을 살아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은 이주여성과 자녀가 순응적인 존재로서의 ‘한국인’ 되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삶의 장소에서 삶을 살아내는 토대가 되며, 자녀가 성장해 가는 생활세계의 기반이 된다.

6. 이주자의 삶의 감각과 자녀의 성장

1) 삶의 조력자로서의 자녀와의 관계성

이주여성들은 위계적인 사회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물음을 마주하며, 그러한 이주자의 삶의 감각이 자녀와 정서적인, 소통을 통한 결속감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된다. “내가 말하고 싶어도 들어주지 않는 사회에서 살다보니 자녀의 이야기는 최대한

들어주고 대화”(〈사례 8〉)하고 “애들한테는 무조건 평등하게 해주고, 애들 말을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연구자에게 오래도록 떠나지 않는 감정적인 울림으로 남는다. 말이 들린다는 것은 사회적인 것이며, 사회적으로 누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통되는가에 대한 공론의 장과 연결된다. 버틀러(2008: 77)는 “우리는 (메시지) 전달에 의해, 가장 넓은 의미에서 언어 안에서 발생하는 타자에 대한 필요와 욕망, 그게 없으면 우리가 우리일 수 없는 그런 것에 의해” 구성된다고 한다. 즉, 언어적 메시지는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과정이며, 그것은 내가 타자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타자 또한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이다. 사회적으로 삶의 경험들이 공유되지 않는 것은 동등한 성원권을 갖지 못한 취약한 위치성을 보여주며, 한국에서 삶의 경험을 압축적으로 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녀를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은 불평등하게 살아온 이주여성의 삶을 반추하는 의미이다.

저도 그렇죠. 솔직히 뭐 내가 우리 아들 말을 많이 들어주는 이유도 그게 예요. 혹시 애가 나가서 자기가 말했을 때 누가 안 들어주면 그럼 애가 기죽잖아요 위축되고 그럴까봐. 그래서 애랑 대화를 많이 해야겠구나. 저도 여기서 살면서 위축되는 경험이 많고(사례 9).

소속됨의 불안정성은 이주여성과 자녀에게 단순히 부모와 자녀라는 고정화된 관계의 의미를 넘어서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상호 공유하면서 가족결속을 형성하는 조건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녀와의 소통은 대화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현실의 차별에 대처하는 안정장치이며, 경제적인 빈곤을 함께 해결해가는 조력자가 되는 가족실천의 주요한 자원이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집안은 어렵다 돈은 적당히 밖에 안 된다. 자기가 엄마 그러면 저는 알바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재가 엄마 아빠를 인정하는구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구나 싶고. (...) 저는 애들한테 비밀안해요. 제가 일하면서 무시당하는 것도 얘기하고, 엄마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엄마는 좀 더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겠다. 엄마는 꼭 그 런일 하지 말고 영어강사 해도 되고(사례 1).

“비밀”이 없는 관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통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과정이며, 이주자인 어머니가 경험하는 “무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족관계의 전략으로 의미화된다. 위의 이야기는 “어른”과 자녀라는 위계적인 구도가 아니라 서로에게 삶의 안정망이 되어 주는 조력자이며, 한국에서의 생활세계를 함께 만들어 가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성을 보여준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참여자가 생계를 책임지거나, 경제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적인 현실에 대해 자녀와 소통하는 것은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와의 관계결속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 또한 가족결속을 만들어 가는 책임을 가지며, 어머니가 경험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불합리함을 해결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사례 1>은 본인이 시어머니한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을 집안의 “대장 같은” 딸이 대신 말해 준 덕분에 아이다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딸이 남편에게도 “아빠는 필리핀 가면 대접받는데,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아빠는 왜 한마디 못해?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라고 대신 항변에 주기 때문에 <사례 1>이 가족관계에서 인정되고, 삶을 살아내는데 큰 힘이 된다고 한다. 이렇듯,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거나, 학교에서 배운 요리를 알려주는 등 다양한 가족역할에 참여하고, 남편과 힘든 <사

레 7)의 경우에는 자녀와 이혼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고, 소통한다고 한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인’ 부모처럼 자녀에게 동일하게 해줄 수 없다는 미안함,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 하지만, 취약한 이주자의 위치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것으로만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는 삶의 조력자가 되는 토대가 됨을 보여준다.

2) 삶의 유연성과 생애모델

연구참여자들은 ‘무기력한’, ‘불행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녀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일상적인 실천들을 수행하며, 그러한 노력들이 자녀에게 전수되고, 가족결속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된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문화 강사를 하는 이유는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른 주변의 인정이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엄마에 대해서 가지는 자부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엄마가 경찰서 통역도 하고, 다문화강사나 다문화센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애기가 엄청 좋아”(〈사례 2〉)하며 친구들한테 “사랑하고”(〈사례 5〉), 아버지와 달리 대학을 나온 경우에 엄마가 “영어강사” 한다는 것이 자녀의 자부심으로 이어지며(〈사례 10〉), 엄마가 생산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기업을 만든 〈사례 3〉의 경우에도 자녀가 지역이나 학교에서 가지는 자부심이 크다고 이야기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가 가난, 낮은 지위 등과 교차될 때 “우리 엄마는 그냥 공장 다니는 게 아니고 다문화 강사야”(〈사례 2〉)라는 의미는 가족결속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이주여성과 자녀가 주변에서 인정되고, 소속감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주여성이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에 따라 부분적으로나마 사회적 인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엄마 왜 청소일 해? 다문화 강사 하면 안 돼?”(〈사례 7〉)라는 자녀의 요구를 받기도 한다. 이렇듯, 다문화 강사가 가능한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나, 영어나 언어자원 등에 따라 자녀와의 관계가 영향을 받는 현실은 다문화 가족관계 내부에서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 이주의 목적, 출신국에 따라서 동일하지 않은 가족관계의 양상을 유추할 수 있다(이은아, 2013).

이주여성들이 구축하는 생활세계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뿌리를 내리는 삶의 방식만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빈곤함을 탈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혹은 자녀가 미래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한국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고향인 나라로의 역이주도 고민한다. 역이주의 가능성에 대한 삶의 감각은 현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력이며, 불안정한 가족의 미래에 개입하는 과정이다.

태국 땅은 넓잖아요. 근데 한국은 좁잖아요. 그만큼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거. 지금 갖고 있는 한국어 능력 거기서 학원도 할 수 있다. 식당도 할 수 있다. 사업 쪽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느 쪽이든 자녀들도 잘 살 것 같고. 애아빠도 태국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왜냐면 여러 가지로 먹는 거 사는 것도 그렇고. 풍부해요(사례 3).

“어느 쪽이든” 살아낼 수 있다는 감정은 이곳과 저곳에서 생존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삶의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이 곳, 저 곳에서 생존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저곳을 열망하면서 부유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의 미래, 가족의 미래를 위해 역이주의 가능성 또한 계획하는 것은 이곳에서의 삶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과정이며, 글로벌 장소감을 통해서 자녀에게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만들

어내고자 하는 이주자인 어머니의 삶의 전략이다. 글로벌 장소감(a global sense of place)은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지만 동시에 유동적인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며, 한 장소에 대한 삶의 애착이나, 의미들이 다른 장소와의 비교, 연결점, 관계성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Ralph and Staeheli, 2011: 520). 이러한 글로벌 장소감은 획일화된 국가계보에 근거한 가족의 뿌리, 출생의 기원으로 삶을 소급하는 순응적 동화적인 정체성에 개입하는 것이며, 낯선 환경에서도 삶을 살아낸 이주자의 위치 속에서 체화해 온 삶의 감각이다. 일국중심의 삶이 아니라 장소들을 경유하면서 만들어온 이주자인 어머니의 삶의 모델은 자녀에게 전수되며, 그것은 바로 삶의 유연성이다.

저는 지금 내가 보니까. 자녀들은 어떻게든 밸런스 가지고. 자기들이 저한테 영향 받는 거 아빠한테 영향 받는 게 있으니 애들이 잘 될거 같아요. 왜냐면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한국에서) 살았는지 직접 묻고 듣고 하니까. (필리핀) 그쪽에서도 살아봤고, 이쪽에서도 어떻게 사는지 보고. 어떻게 거기서는(필리핀) 성공하는지 자기들도 잘 알잖아요. 내 생각에는 자기들 만약에 여기에서 잘 안되고 실패해도 적어도 다른 방향도 볼 것 같고. 엄마 아빠 없이도 자기들은 스스로 자기들 이제 만들 수 있게 살 것 같아요(사례 1).

“그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살아 본 자녀들의 경험과 부모에게 상호적으로 받은 “영향”이 삶의 밸런스를 가지는 토대라고 이야기한다. 삶의 유연성은 “잘 안되고 실패해도” 대처해 갈 수 있는 자원이며, 그것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듣고, 배우고, 체감하는 삶의 가치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전하는 삶의 유연성은 “나는 내가 태국사람이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버리지 않고 이것도 인정”해 온 삶 속에서 체화해 온 아비투스이며, 자녀들 또한 “합쳐서 하나가 되는”(〈사례 3〉) 삶

의 방식을 배우는 토대라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삶의 유연성은 혼종적인 삶의 가치에 기반한 생애모델을 보여준다.

아무래도 외국 사람인 내가 여기서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살고 있고, 제
가 (아들한테) 롤모델처럼. (아들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한국문화와 생
각이 가운데로 믹스처럼 꺾빙수처럼. (...)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게
현수(아이이름)인거야. 믹스로 이 사람 현수가 된 거고. 다른 사람이 보
고 우리도 할 수 있네. 우리도 여기서 잘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다른
나라에서도 잘 살 수 있고(사례 6).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산다는 의미는 한국문화에 동화되어야 하는 압박만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의 삶에 동화되기 위해서 삶의 방식의 차이를 “믹스”하는 삶의 유연성을 드러내며, 그러한 삶의 유연성은 자녀에게 전수되는 중요한 가치이다. 삶의 양식을 수용하는 태도는 삶의 장소성을 만들어나가는 행위성이며, 또 다른 낯선 곳을 마주할 ‘한국인’에게 “다른 나라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생애모델로서 의미화 된다.

7. 나가며

‘한국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혹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동등한 성원권을 가지는 자가 누구이며, 배제적이고, ‘일탈적’인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위계체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온전한 ‘한국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은 민족정체성, 섹슈얼리티 규범, 인종, 장애, 젠더 등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과 교차되며, 시민 내부에서 동일하지 않은 삶의

위치를 강제한다. “정체성 혼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상담서비스 절실”이라는 신문 타이틀에서 과연 ‘정체성 혼란’은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본 혼란인지를 되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경기일보』, 2016.6.12).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혼란은 획일적인 순혈주의에 기반한 국가게보가 만든 혼란이며, 그것은 여전히 혈통이라는 순수성으로, 민족정체성으로 ‘한국인’의 뿌리를 상상하는 규범의 결과이다. 사회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으로 연결되는 주체는 언제나 소수자들이다. 다문화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들 또한 이성애, 젠더규범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존재들로 의미화되고, 규범적이지 않은 존재, 예외적인 존재들로 배치된다. 이렇듯, 국가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존재들로 규정되는 삶들은 이 사회에서 온전한 시민의 모델, 삶의 모델을 갖지 못하며, ‘완성’되어야 할 미완의 존재로, 혹은 성장의 한 단계로 규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랜스내셔널’은 태어난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의 이주나, 국경을 넘는 이동이 보편화된 시대적인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셔널’ 자체를 규정하는 규범에 대한 변형, 규범 자체를 ‘트랜스’하는 시대적인 요청을 반영한다(오경환 외, 2014: 10).

한국사회가 미래세대의 국가 인구정책 속에서 이주여성들을 재생산, 출산의 주체로서 재현하지만, 자녀의 성장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을 통해 이주여성을 타자화 할 때, 이주여성들은 일상적으로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자녀 양육의 책임은 주어지지만 양육의 권위는 상실될 수 있다. 무엇보다, 통합적인 이주정책의 부재는 혈통에 기반한 속인주의에 의해서 국적을 부여하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거나, 이주노동자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나도 국적을 부여받을 수 없고 다문화정책적인 지원에서도 배제되는 현실이다(허오영숙, 2016).

노동을 하는 삶, 결혼을 하는 삶, 출산을 하는 삶, 양육을 하는 삶들이 국가에 의해서 구분될 때,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이라는 삶의 장소에서 최소

한의 성원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할 수 있는가를 증명해야 하는 위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생의 기원, 부모의 뿌리를 심문하는 다문화가족규범, 국가규범, 민족규범 속에서 ‘한국인’다운 삶의 실천, 자녀의 성장에 대한 불안, 불안정한 시민권을 경험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라는 의미는 동화되어야 하는 억압적인 정체성 범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권, 평등권, 인권이 더 나은 한국에서의 삶을 자녀에게 살게 하고자 하는 이주자인 어머니의 선택적인 의미와 만난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이주의 동기는 차별과 불평등에 무기력한 존재로서 삶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과 자녀가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성을 만들기 위해 배제적인 삶의 방식에 개입하면서 생활세계를 확장하는 행위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소수자로서의 삶이 고통을 받는, 차별을 경험하는 순응적인 존재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취약성이 자녀와 평등한 관계이자, 삶의 조력자가 되고자 하는 이주자의 삶의 감각으로 체화됨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문화나 삶의 방식의 차이를 수용하는 삶의 유연성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삶의 기술이며, 삶의 자원으로 등장한다. 사회적으로 소수자들을 어떤 ‘속성’을 가진 집단으로 재현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그것은 현재, 이곳에서 한국인/비한국인의 경계로 포섭될 수 없는 이질적인 삶의 가치들이 만들어 내는 삶의 모델들을 비가시화하기 때문이다. 이주자의 위치 속에서 구성하는 혼종적 삶의 모델들은 일국적 소속의 의미나 사회적으로 확립화된 민족정체성에 기반한 한국인 되기의 삶의 억압성과 불평등에 개입하는 과정이며, 단일한 민족적 이데올로기의 규범성을 공론화하는 과정이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3),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경원(2010),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 경험”, 『한국모자보건 학회지』, 제14권 2호, 133-144쪽.
- 김민정(2007), “한국 가족의 변화와 지방 사회의 필리핀 아내”, 『페미니즘 연구』, 제7권 2호, 213-248쪽.
- 김영란(2012),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고찰: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와 현황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 연구』, 제13권, 31-67쪽.
- 김영옥(2010), “인정투쟁 공간/장소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아 이다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제14호, 31-64쪽.
- _____ (2012), “결혼이주성과 ‘다문화 사회’: 가족이데올로기를 넘어서”, 『문화과학』, 제69호, 167-175쪽.
- 김영주(2010),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젠더관점과 다문화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3권 1호, 51-73쪽.
- 김정선(2011),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 사회』, 통권 제92호, 205-246쪽.
- _____ (2012),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변화하는 ‘home’의 의미와 시민으로 주체되기”, 『여성학논집』, 제29권 2호, 61-105쪽.
- 김청강(2014), “보이지 않는 혼혈인: 〈내가 낳은 검둥이〉로 본 대한민국 ‘검은 피부’의 정치학”, 『고아, 족보 없는 자』, 박선주·오경환·홍양희 엮음, 서울: 책과함께, 155-197쪽.
- _____ (2017), “국가를 위해 죽을 권리: 병역법과 성스러운 국민만들기”, 『성스러운 국민: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근대 국가의 법과 과학』, 홍양희 엮음, 서울: 서해문집, 113-143쪽.
- 김현경(2015),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현미(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정치학”, 『경제와 사회』, 통권 제 70호, 10-37쪽.
- _____(2010), “결혼이주여성의 가정(Home)만들기: 문화 접경지대 번역자로서의 이주여성”,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8권 3호, 145-174쪽.
- _____(2013), “누가 100퍼센트 한국인인가”, 『우리 모두 조금 낮은 사람들』, 이주여성인권포럼 엮음, 서울: 오월의봄, 16-35쪽.
- _____(2014),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서울: 돌베개.
- 나영정(2017), “세계와의 불화, 피부의 연대: 페미니스트, 소수자, 퀴어”, 『페미니스트 모먼트』, 권김현영·손희정·한채윤 외, 서울: 그린비, 102-134쪽.
- 맥도웰, 린다(2010),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과주: 한울아카데미, MacDowell, L.(1999), *Gender, Identity and Place*,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모한티, 찬드라 탈파드(2005), 『경계없는 페미니즘: 이론의 탈식민화와 연대를 위한 실천』, 문현아 옮김, 서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Mohanty, H. T.(2003), *Feminism Without Borders: Decolonizing Theory, Practicing Solidarity*,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박미선(2014), “글로리아 안잘두아의 교차성이론: 초기 저작에서 『경계시대/경계선』까지”, 『여성학 연구』, 제24권 1호, 95-126쪽.
- 백영경(2015), “미래를 위협하는 현재: 남한에서 공동체의 위기와 재생산 통제 의 역사”,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제3차 한·중 젠더국제학술대회 〈연구, 몸, 장소: 저출산시대 한·중·일의 인구정책과 젠더〉(2015.8.21).
- _____(2016), “소수자 인권과 한국사회 시민권의 재구성”, 『창작과 비평』, 제44권 1호, 99-115쪽.
- 버틀러, 주디스(2008),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양효실 옮김,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Butler, J.(2006), *Pre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London: Verso.

-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_____ (2016),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염운옥(2009),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 유전자 정치와 영국의 우생학』, 서울: 책세상.
- 오경환·박선주·홍양희(2014), “불가능한 비교: ‘고아’라는 비유”, 『고아, 족보 없는 자』, 오경환·박선주·홍양희 엮음, 서울: 책과함께, 5-13쪽.
- 윤발-데이비스, 나라(2012), 『젠더와 민족: 정체성의 정치에서 횡단의 정치로』, 박혜란 옮김, 서울: 그린비, Yuval-Davis, N.(1997), *Gender and N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 윤재희·유향선(2011)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하기”,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1권, 41-80쪽.
- 이나영(2006), “초/국적 페미니즘-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확장”, 『경제와 사회』, 통권 제70호, 63-88쪽.
- 이수자(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제38권 2호, 189-219쪽.
- 이은아(2013),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노릇과 정체성: 자녀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9권 3호, 115-146쪽.
- 장미경(2001),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 『한국사회학』, 제35권 6호, 59-77쪽.
- 전경숙·임양미·양정선 외(2010),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주 정(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복지행정논총』, 제21권 2호, 81-99쪽.
- 천호성·박계숙(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2권 2호, 416-444쪽.
- 한경님(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73권, 171-190쪽.

허오영숙(2016), “성과 재생산: 한국의 이주여성에 관련하여”, 성과 재생산 포럼 <소수자운동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말하기> 토론문(2016.8.23).

황정미(2012), “다문화 사회와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 모성 담론의 재구성과 어머니의 시민권에 관한 고찰”, 『아시아여성연구』, 제51권 2호, 103-142쪽.

Anzaldúa, G.(1981), “La Prieta”, in *This Bridge Called My Back: Writings by Radical Women of Color*, eds. C. Moraga and G. Anzaldúa, Berkeley: Third Woman Press, pp. 181-193.

Caballero, C., R. Edwards, and S. Puthussery(2008), *Parenting ‘Mixed’ Children: Negotiating Difference and Belonging in Mixed Race, Ethnicity and Faith Families*,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Gedalof, I.(2003), “Taking (a) Place: Female Embodiment and the Re-grounding of Community”, in *Uprootings/Regroundings: Questions of Home and Migration*, eds. S. Ahmed, C. Castada, and A.-M. Fortier et al., London: Berg Publishers, pp. 91-112.

Kim, M. J.(2013), “Citizenship Projects for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Intersecting Motherhood With Ethnicity and Class”, *Social Politics*, 20(4), pp. 455-481.

Jackson, S.(1998) “Telling Stories: Memory, Narrative and Experience in Feminist Research and Theory”, in *Standpoints and Differences*, eds. K. Henwood, G. Christine, and P. Ann, London: Sage, pp. 45-64.

Ralph, D. and L. A. Staeheli(2011), “Home and Migration: Mobilities, Belongings and Identities”, *Geography Compass*, 5(7), pp. 517-530.

Rumbaut. R. G.(1994), “The Crucible Within Ethnic Identity, Self-Esteem, and Segmented Assimilation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8(4), pp. 748-794.

Voet, R.(1998), *Feminism and Citizenship*, London: Sage Publications.

〈인터넷 자료〉

입실사랑(2011), “반다문화 집회를 합니다”, <http://blog.naver.com/moses8291/130121176105>
(검색일: 2017.4.25).

〈신문기사〉

『경기일보』, 2016.6.12, “정체성 혼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상담서비스 절실”.

『국민일보』, 2009.7.21, ““오바마를 보라” ... 다문화 가정은 단점이 아닌 장점”.

『한국국정일보』, 2014.5.25,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우리 사회관심필요”.

(논문 투고일: 2017.04.25, 심사 확정일: 2017.06.02, 게재 확정일: 2017.06.13)

〈Abstract〉

Becoming ‘Korean’, Social Belonging: 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Kim, Sunnam*

This article examines how migrant women construct and shape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through various practices that negotiate and challenge the idea of ‘Koreanness’ - the idea that produces social anxiety in multicultural children in Korea. By closely analysing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this article explores various ways in which migrant women exercise agency to create everyday social and relational spaces for belonging. Migrant women, through various practices, negotiate and challenge social prejudices and norms. They attempt to break the social division between ‘right’ citizens and ‘dysfunctional’ citizens so as to make a respectable and alternative life space for themselves and for their children. Migrant women as mothers are not helpless victims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Rather their vulnerable experiences of marginaliation in Korea are used as resources to form an equal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and to shape alternative family practices. This paper argues that migrant women and their relationships to their children question and challenge the concept of a homogeneous ‘Korean’ identity, culture and nation.

Key words: migrant women, multicultural family, immigrant positionality, multicultural children, Korean identity

* Research Professor, Gender Research Centre, Democracy and Social Movements Institute, Sungkonghoe University